이렇게 우리가 나고 죽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불법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든요, 모두가.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대치를 못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는데 그렇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킬 수 없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할 때, 괜히 장난으로 하는 것 말고요.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그거는 틀림없이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이,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들…, '옛날의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 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물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고, 산 사람으로 가면 산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몸뚱이 속의 자기와 동료로서 같이 움죽거리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예?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이렇게 뭉쳐 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 의식들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프니까 아픈 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맡기는 것이 안 되면 또 '에이그', 그렇게 '에이그' 하고 버릴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저 충주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부인이 백혈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구박이 자심하고 그래서 왔다고 울면서 그때 25만 원인가 정성을 들이면서 쌀 한 말과 초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소저 할머니가 여관 하실 때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과로 아주 들어갔죠. 마음공부는 못 시킬망정 그 애로점을, 그 울고불고하는 거나 없애 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나아서 갔습니다. 그 여관에서 며칠 있으면서 아주 그냥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 보니까 이거 오진을 했다고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오진이라는데 왜 그런 돈을 없앴느냐 하면서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허허허. 그때 찾으러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이소저 할머니더러 "그 쌀하고 초하고, 꼭 그 보따리를 놔두십시오. 그 봉투도 건드리지 말고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것을 꼭 두시라고 합니까? 신도들 오는데 밥이라도 해 주지." "그냥 놔두십시오. 쓸 데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아, 찾으러 왔답니다. 찾으러 왔으니 안 줄 장비(張飛)가 없죠, 하하하. 무슨 그거를 탐내고 그러는 사람 같으면 "부처님 앞에 정성 들이고 간 거를 왜 되찾으러 왔느냐?" 이러겠지만, "가지러 올 줄 알고 여기 놔두었다." 그러고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 부인은 나았는데 반대로 본인이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거를, 그 업보라는 거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없애면 저게 생기고, 저거를 없애면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찾아가고는 염치가 없으니까 못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딱하다고, "하이고, 그렇게 그 부인도 어린애 못 낳는 것 어린애 낳게 해 주시고, 미친 것도 낫게 해주시고 또 백혈병도 낫게 해 주셨다는데 그것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에 "아이, 내가 뭐, 병원의 의사입니까?" 이럭하고선 그래도 마음으로 안됐어서, 그저 근근이 감자 물이라도 해 잡수라고 했는데, 그 감자 물이 낫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고, 죽는 게 두렵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부처님이 있으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깐 주인공도 쓸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올팡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나를 형성시키고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떡합니까? 거기서만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그 해결을 하지, 마음으로 병난 거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이 병난 거는 육신으로 대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죠? 이 물질적인 문제도 또 없어서는 안 되죠.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 걸러 돌아가면서 이것이 확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찰나에 쏜살같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이렇게 섰다면…, 이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그냥 동시에 쫙 전력이 나가듯이, 마음에서 한 번 생각하면 이 두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그냥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따라 주니까, 그냥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어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그래서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적절히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 모두가 옛날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어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착 나서더니만 그냥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 준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 이럭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급하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다섯 명이 칼을 들었는지 뭐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쳐다보고 서 있으니까, 오더니만 아래 위로 딱 전부 뒤지더니 돈 만 원이 나오니까 돈 만 원만 가지고선 "에이, 여기 이 새끼는 속에 시계도 차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러고선 아, 그대로 가더랍니다.

발길질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야,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기다가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악하게 마음이 됐던 것을 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경전을 달달 외우고, 학술적인 지식적인 뭐를 가지고 거기에 그냥 딱 죄여서 머리가 굳어 가지고는 옴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살아오면서 그것이 관습이 돼서 아주 인이 박혔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약아서 요건 요렇다, 요건 못 한다 한다, 이럭하면 잘되겠고 이럭하면 못되겠고, 이것이 아주 뚜렷하니까 거기에 딱 틀이 박혀서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니야?' 거짓이고 잘못이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는데.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래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래야 살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름을 믿으라나 허공을 믿으라나? 아이, 이러니까 살펴볼 것도 없지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선하던 사람은 좌선만 해야 하는 줄 알고, 또 좌선하면 무슨 큰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 자체, 이렇게 우리가 나고 죽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불교고 그대로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公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생활 속에서, 내가 가고 오는 데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 주인공이라 하는 거, 이 '공(空)' 자가 들어간 거는 뭐냐? 고정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저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조것 보면 또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조것 들으면 달라지고 이게 그냥, 아주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 그 도리를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하는 게 종교인 줄 아시고 돌아가야만이 이게 진실히 믿어지고 '죽는 것도 네가 죽게 하는 거고 살게 하는 것도 형성시키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데 어디다가 생사를 붙일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에 마음이, 움죽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한번 병들고 쓰러지니 그뿐입니다. 보잘것없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루살이를 볼 때. 저 산천초목이, 저 산봉우리가 또는 큰 돌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강원도 금강산의 일만 이천 봉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죠? 그러니 일만 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뜻이 있는 겁니다. 팔만 구 암자 하는 것도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요, 미래의 얘깃거리가 오는 것도 바로 오늘 얘깃거립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현생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살았는데…."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은 못살았느니 못 먹었느니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믿음,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 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갈 거라면 그렇게 믿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이 몸뚱이 속에 사는 그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게끔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을까요?

(다음 호에 계속)

나의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바로 갈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 법문은 92년 1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